



한 상 원

한상물류연구소 소장

## 환경친화성 포장재 개발에 주력해야 할 때

### It's time to focusing on develop environmental-friendly Packaging material

헝가리 출신이며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인문과학 박사인 이반 라즐로는 그의 저서 'Vision 2020'에서 지구의 종말론에 가까운 이론을 내놓았다. 그의 예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유네스코 사무총장 고문을 지냈고, 유럽진화론 연구 아카데미 회장, 국제체계과학 회장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구가 균형을 잃은 성장으로 인구 폭발, 식량과 환경 등의 문제로 심각해지고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들로 기상변화, 산림의 훼손, 식량과 농업, 에너지 등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했다.

제시된 현상들은 이미 우리에게 각종 형태의 재해로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다. 20년 뒤의 일이 아닌 것이다. 지난 해 전세계에서는 각종 재해로 5만2천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약 72조1천5백억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했다고 세계적 보험회사 스위스 레가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해의 80% 이상이 자연재해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인간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재해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잇따라 발생하는 사상 유례없는 대형지진, 태풍, 폭우, 폭염, 가뭄 등이 지구를 혼돈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전세계인들의 환

경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다. 최근에 WTO가 무역규제의 무기로 환경친화적 여부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지만 지구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환경운동 최고이론가인 바이츠 재커는 21세기에는 '환경효율성'에 인류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한다. 친환경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구조와 함께 친환경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 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초일류 기업들은 기업가치 및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현상은 어떠한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는 시작하자마자 쓰레기량을 30%나 낮추는 성공적 제도로 평가받았으나 그 후 애석하게도 국민적 호응 부족으로 또다시 쓰레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은 어떤가. 기업이 만든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이야기이고 소비자가 쓰고 난 후의 폐기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물류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조달, 생산, 판매

가 잘 연결되어야 하지만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폐기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폐기문제는 물류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포장에 대한 관심은 싸고 튼튼하여 상품의 안정성에 치중하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포장으로 인한 비용절감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환경친화적인 포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려있는 포장재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재사용하도록 제작하기보다는 쓰기 편하게 제작하는 것이 앞선다. 땅속에 묻혀서 썩지 않는 포장재를 언제까지 만들어 낼 것인가. 오늘 우리가 편한 것보다는 우리 후손을 배려하는 마음이 포장업계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포장업계의 사명은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비싸더라도 개발해야 하고 이후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려는 안이한 자세보다는 피땀 흘려 연구하여 세계의 최초라는 합성을 올려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부터 기업 내에 포장연구소를 두어 신제품 개발과 포장, 포장과 물류와 관계를 연관지음으로 포장비와 물류비를 동시에 절감하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상품제작과 그 상품을 아름답게 꾸미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포장재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 이미 시작된 WTO의 환경친화적 국제 전략에 대비하고 있다. 상품의 환경친화적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즐겨 먹는 야쿠르트를 생각해 보자.

상큼하고 영양이 많은 야쿠르트는 입속에 넣자마자 재사용(RECYCLE)의 필요없이 몸 속의 물류과정을 거쳐 소모된다. 문제는 상품의 내용물이 아니라 상품을 담는 용기-야쿠르트 병이다. 야쿠르트 병의 재질은 ABS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유화학제품이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지만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친화적 마인드와 재활용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사용자의 의식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야쿠르트를 먹기 위해 뚜껑인 은박지를 벗길 때 대부분 2/3 쯤만 벗긴다. 그 상태로는 재활용을 할 수 없어 대부분 폐기처리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땅속에 묻어 쉽게 썩지 않는 포장폐기물로 남게 만드는 것이다.

새 밀레니엄은 그린라운드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은 생산제품에 국한되어 있지만 얼마 못가서 포장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선진국들은 각종 규제로 무역의 이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 준비없이 안일하게 있다가 때가 되어서야 급히 서두르는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왔다.

새 천년이 시작된 올해부터는 포장인들의 사명감에 불타는 환경친화적 개선작업이 쉼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목표가 차질없으려면 환경친화적인 포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환경경영의 경쟁력이 앞선 국가가 되도록 힘을 합쳐야 할 일이다.

결코 먼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